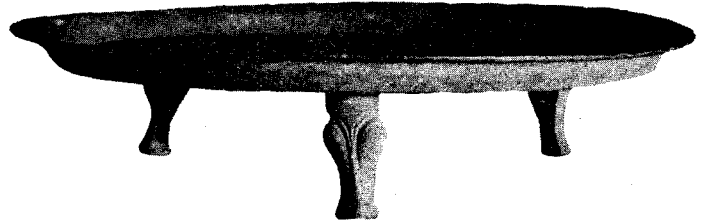


樂浪有足銅盤

金 廷 鶴

얼마전에 松隱 李秉直 先生宅에 가서 珍貴한 所藏品들을 拜觀할 機會가 있었는데, 그 중에 樂浪 有足銅盤이 있었다. 筆者로서는 처음 보는 것이었고, 또 完美한 것이어서 後日 適當한 時期에 學界에 紹介할 것을 約束한 바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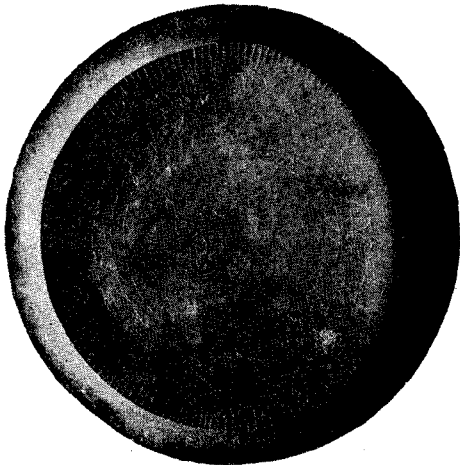


中國 古銅器하면 다 아는 바와 같이 殷周의 그것을 따를 것이 없는 바이나, 漢代의 銅器는 또한 그것대로 特色이 있어서 愛玩 또는 研究의 對象이 되고 있다. 더우기 그것이 樂浪의 故地에서 出土된 것이어서, 우리 땅에 꽃피었던 漢代 文化의 研究에도 중요한 資料가 될 것을 믿어 이에 紹介하는 바이다.

이 銅盤의 內面 中央에는 四葉座紋이 陰刻되었고, 그 사이 사이에 雙鳳 雙獸를 交代로 配置하였으며, 그 바깥 둘레에는 圓圈을 들이지 않고, 複線으로 網紋을 새겼다. 다시 그 바깥 둘레에는 圓圈을 劃하고, 가는 鋸齒文을 陰刻하였고, 外反된 口緣部에는 菱形文을 連結하여 장식하였다.

盤의 裏面 바닥에는 Y字形을 鑄出하고, 매미(蟬)모양의 발굽을 달아 三足を 만들었다. 盤의 直徑은 37.5cm이고, 높이는 8.2cm이다. 銅鏽는 灰黑色을 나타내어 蒼古한 맛을 풍기고 있다.

이 銅盤은 1944년에 平安南道 大同郡 大同江面 石巖里에서 出土되었다고 하며, 伴出物로서는 有文漆盃, 漆篋, 壽如金石長宜子孫銘鏡, 木印, 太刀 등이 있었다고 하는데, 分散되어 現在의 所在은 알 수 없어서 一括 遺物로서의 研究가 어려운 것이 遺憾이라 하겠다.



樂浪 銅盤은 이 밖에 平壤 附近 古墳 出土라고 傳하는 畫象文 銅盤이 3點이 있으나, 出土地가 分明치 않으며, 다 다리가 없는 平盤으로서, 文樣 手法이 또한 이 石巖里 出土의 三足 銅盤과 다른 點이 많다.

이 三足 銅盤은 鑄造의 技術이 優秀하여 銅質의 腐蝕이 없이 거의 二千年동안 地下에 完全히 存在되어 있는 것은 稀貴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寡聞한 筆者로서는 처음 보는 것이며 더우기 그것이 完全히 保存된 點에 있어서 樂浪文化 또는 漢代文化의 研究에 貴重한 資料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文化財는 마땅히 國寶 또는 寶物로 指定되어 永久한 保存을 꾀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 믿는 바이다.